



식약처, '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

- 올해 9개 기업 지원 목표, 6월 7일까지 참여기업·컨설팅 수행기관 모집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*해 의약품을 개발·출시하고자 하는 중소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'2026년 의약품 특허 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'의 참여 희망 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(특허법인 등)을 6월 7일까지 모집**한다.

* 소송 또는 심판으로 기존 특허의 무효 또는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음

** 모집기간 : (참여기업) 5.18.(월)~6.7.(일), (컨설팅 수행기관) 5.11.(월)~6.7.(일)

올해에는 9개소 이내의 중소제약기업을 선정해 ▲개발 목표 의약품 관련 국내·외 출원 특허조사 ▲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등의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며, 기업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모집 대상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천팔백억 원 이하인 중소제약기업이다. 참여 기업은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하거나, 본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 목록을 제공받아 신청할 수 있다.

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전자우편 (medi-pat@koipa.re.kr)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'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(www.koipa.re.kr) → KOIPA공지사항 → 사업공고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참고로, 식약처는 중소 제약사의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총 61개 기업, 104개 과제에 의약품 특허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, 참여기업은 특허 도전을 통한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성과를 획득한 바 있다.

식약처는 중소 제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제약 업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<붙임>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

담당 부서	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남수 (043-719-2341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선 (043-719-2303)



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

- 신청 자격**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
*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 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,800억원 이하인 기업
- 지원 규모** 총 9개사 이내
- 지원 금액** 기업별 최대 3,000만원
*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,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
*총 컨설팅 비용의 30%는 기업에서 부담해 책임감 부여
- 지원 기간** 2026.7. ~ 2026.10.
* 컨설팅 수행기간은 과제별 3자 협약에 의해 협의 가능
- 모집 기간** 수행기관(특허법인 등) 5.11.(월) ~ 6.7.(일)
지원기업(중소제약사) 5.18.(월) ~ 6.7.(일)
- 신청 방법** 전자우편 제출(medi-pat@koipa.re.kr)
- 문의처** 02-6196-2071,2073
(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보호문화교육실)

